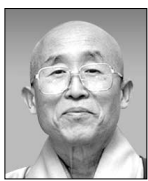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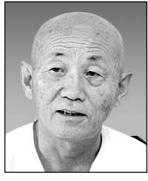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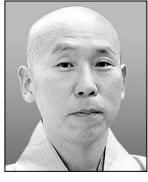
일주문



제6회 지훈상 국학부문 수상
동국대학교장 월운 스님은 <선문열승> <염송설화> 등 출간을 공로로 4월 20일 제6회 지훈상 국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6 포교전진대회서 법문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은 4월 27일 오후 7시 대전웨딩홀에서 열리는 '2006년도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전진대회'에서 법문한다.



파라미타 문화제헌대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전지부장 장국 스님은 4월 16일 공주 감사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 함께하는 제6회 파라미타 문화제헌대회'를 개최했다.



관음사 불철 수계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4월 15일 영남불교대학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500여명의 불자를 대상으로 불철 수계식을 봉행했다.



부활절 기념미사에서 법문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4월 16일 10여명의 불자들과 함께 안양 중앙성당을 방문, 부활절 기념미사에 참석해 법문했다.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취임
前 승가원 장애아동요양시설 원장 지웅 스님은 4월 17일 대흥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으로 취임했다.



부처님오신날 맞이 경료잔치
강릉 현덕사 주지 현중 스님은 4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강릉시 연곡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 '제7회 봉축 경료잔치'를 연다.



제1회 성남불교 만해축제
성남 불국사 주지 효관 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경내에서 제1회 성남불교 만해축제를 개최한다. (031)755-0329



청주불교방송에서 교계 포커스 진행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현대불교신문 대전총부지부장)은 4월 20일부터 청주불교방송에서 '혜철 스님과 함께하는 교계 포커스' 진행을 한다.



봉축 행사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4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 행사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해국 스님 초청 봉축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5월 2일 오후 5시 일산불교병원 대강당에서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해국 스님 초청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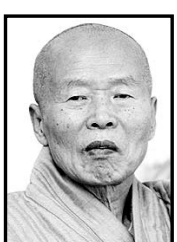
울산교사불자회 창립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 회장은 4월 23일 울산 정토사에서 교사불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교사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대불련 부산동문회 제7대 회장
동아대 도시계획조경학부 오윤표 교수는 4월 2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대불련 부산동문회 제7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향천사 천불선원 선덕 대웅 스님 입적

충남 예산 향천사 천불선원 선덕 향림당(香林堂) 대웅(大用) 스님(사진)이 4월 19일 오전 6시 30분 향천사 영화실에서 세수 77세, 법랍 48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21일 향천사에서 임수됐다. 대웅 스님은 1929년 일본 경도에서 태어나, 43년 일본 복강현 향순심상교 등소학교를 졸업하고 45년 서울 제신학교 우편과를 수료했으며, 1958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특히 평생을 상좌를 한 명도 두지 않았으며 주지 소임 한 번 쉽지 않은 선격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한명우 기자



“쉽고 편하면 더 즐겁죠”

부처님오신날 트로트음악회 여는 현진 스님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청주 관음사에서는 이색적인 음악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 음악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음악회는 일반적인 산사음악회와는 다른 ‘트로트 산사음악회’였다. “모든 계층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생각하다 트로트를 발견(?)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계층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생각하다 트로트를 발견(?)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쉽게 접할 수 있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월 5일 오후 8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산사와 트로트의 이색 만남-제2회 트로트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사진). 뛰어난 현대감각과 풍부한 포교 경험을 갖춘 현진 스님이 추구하는 것은 '뚝뚝 뒤편서도 대중적인 프로그램'. 관음사와 지역민들 사이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중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현진 스님은 트로트를 택했다. 그 판단은 적중했고, 작년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nia.com

트로트 음악회는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인지 올해 트로트 음악회에 현진 스님이 갖는 기대감 역시 크다. “트로트와 지역정서의 매치시키는 것도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기대합니다.”

이날 트로트 음악회에는 진시문과 박주희 등 초대가수 외에 강민정 석기영 이현민 신주나 유미 등 지역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또 관음사 여성신행단체인 '관음회'가 출연 가수들과 함께 트로트를 합창하며, 관음사 군인법회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며 '꼭지점 댄스'도 흥을 돋울 예정이다. (043)256-6254

조계종 선문회 회장 육문 스님 유임

조계종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4대 회장에 육문 스님(은혜사 백흥암 암주·사진)이 재임됐다. 선문회는 4월 16일 해인사 약수암 죽림선원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육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에 승찬·일운, 기획실장에 성정, 총무에 탄형, 재무에 풍호, 서기에 종각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20개 선원에서 47명의 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음력 1월 16-18일, 7월 16-18일이 지난



후 방부명단에 선문회 회장에 패스로 보내, 이중으로 방부들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육문 스님은 1962년 출가한 후 1970년 경북 양진암에서 수선 안거하는 등 24안거를 성단했으며, 백흥암 감원과 제11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중국어 직지 꼭 찾겠다”

직지탐험대 정덕형 소장 “직지를 찾기 위해 묵은 이색이 쓴 직지 서문에 나오는 백운화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직지를 꼭 찾자 돌아오겠습니다.”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직지를 찾기 위해 민간 탐험대를 구성하는 직지문화연구소 정덕형(48·사진) 소장은 “백운화상이 스승 석유정공선사를 만나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받은 기록을 단초로 중국 절강성 호주, 하남성 낙양, 산서성 장지 지역을 탐사할 예정”이라며 “문헌 조사와 지명연구를 통해 직지 존재 가능성이 있는 3곳을 순례해 꼭 풀리지 않는 직지의 행방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5-6월 직지 매니아 10-20명을 모아 '직지 탐험대'를 구성하고 중국 3곳의 순례지에 도서관, 사찰, 고서점을 돌며 직지 원본의 소재를 추적한다. 순례를 마친 이후에는 여행기와 직지를 찾기 위한 방법을 적은 가집 <직지 찾기 매뉴얼>을 출간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조선왕조실록 되찾기 국회의원 모임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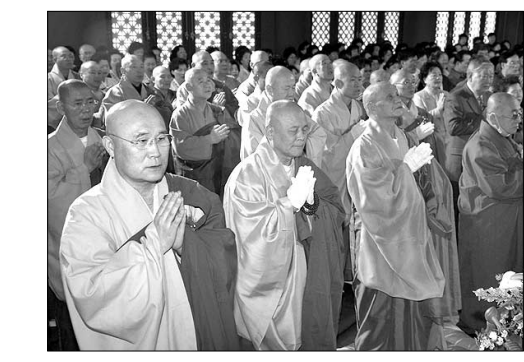
강혜수, 김원웅, 노회찬 의원 등은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남, 봉선사 주지 철안)의 활동 경과를 듣고 '조선왕조실록되찾기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또 5월 3일경 일본 외무성과 동경대에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김두식 기자

청담문화센터·평생교육원 개원



청담학원(이사장 해자) 부설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개관식이 4월 20일 평택 청담정보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청담학원 명예회장 혜성, 청교련 총재 현성 스님과 순학규 경기도지사, 송명호 평택시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개관식에서 해자 스님은 “문화센터는 시민을 위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과 후 교육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원은 학교재단의 부지 1,000평 위에 경기도 교육청과 평택시청의 지원금 약 25억여 원을 받아 타원형 3층 건물에 300석 규모의 계단식 세미나실과 전시실, 강의실 등을 신축했다. 평택=고영배 기자

양주 육지장사 10년불사 회향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가 10년간의 불사 끝에 4월 16일 준공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중앙총회회장 법등, 신희사 주지 오현 스님, 조계종전국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불교계 지도자와 신도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전에서는 좀처럼 안 보이는 장보살 한 분을 조성해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육지장사에서는 육단 분의 지장보살님을 조성할 것을 발원했다. 그 원력과 신심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육지장사는 지장기도를 통해 중생의 악업을 녹이고 현세의 청정한 삶을 창조해 내는 도량으로 가꾸겠다”며 “앞으로 기도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문화도량으로 가꿔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임연대 기자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이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동국대 홍선선 교수가 시, 경기대 윤금조 교수가 시조, 소설가 조정래씨가 소설, 고려대 김인환 교수가 평론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창립 12주년 법회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는 4월 14일 국제신문 크리스탈 뷔페 별관에서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홍 스님을 비롯해 150여 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2006년 우수프로그램 포상 및 자료집 발간 행사가 열렸다.

광명사 제9대 주지 갈웅 스님 취임법회



천태종 부산 광명사 제9대 주지 갈웅 스님 취임법회가 4월 14일 광명사 유치원 강당에서 봉행됐다. 법회에서 갈웅 스님은 “상월원각 대조사의 수행 풍경을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충만한 도량,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수행처와 인식처의 역할을 고루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100주년 기념 홍보대사 위촉



동국대가 4월 20일 학교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재학생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에는 4학년 황보라, 이상원, 이준문, 전혜민, 서재경, 서영희, 최정원 3학년 정다빈, 정다혜, 이윤미 2학년 한효주 1학년 윤소이, 박하선, 오랫님 학생 등이 위촉됐다.

성북구불교사암련 장학금 전달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호암)는 4월 19일 성북구청 대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 및 봉축법회 행사를 개최했다. 서관고 성북구청장과 장학회장 지오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성고 1학년 양우리 학생 19명이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청주청원사암련 재소자 위문법회



청주청원사암련합회(회장 각의)는 4월 18일 재소자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충북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한 법회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불자 예술인의 공연을 즐겼다. 청주청원사암련합회 회장 각의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 부처님의 광명이 고루 비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국 총용사 수계법회



호국 총용사는 4월 16일 해국사 주지 보현 스님을 전계사로, 죽장사 주지 명호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00여 장병들이 참석한 법회에서 총용사측은 단주와 떡, 우유 등으로 수계자들을 위문했다. 육용수 연대장은 총용사 불사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불교대학 제2기 입학식



보은 법주사 보은불교대학 제2기 입학식이 4월 12일 봉행됐다. 70여명이 등극한 이날 입학식에서 법주사 부주지 무상 스님은 “말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실의를 참회하고 심선행하는 불자가 되겠다는 서원으로 회향하는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국 대한불교진흥원 최명준 사무국장의 장남 재해씨가 4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셀레나홀(前 아미가호텔)에서 김민정양과 결혼식을 올린다. (02) 825-7731